**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인터넷과 정보사회**

**학 번 : 202234 - 363659**

**성 명 : 이 민 규**

**연 락 처 : 010 - 6246 - 1458**

**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 : 공통형**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전염성이 심한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에 직원 한명이라도 코로나에 걸리거나 확진자가 방문을 했을 때 건물 폐쇄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출근길에 지하철과 버스 등 밀폐되고 접촉이 심한 곳이면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도 감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전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처음 입사했을 때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시기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했었고 건물 임시 폐쇄와 주변 건물들 또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건물 임시 폐쇄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이 두명이 따로따로 발생하여 한 달 정도를 재택근무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지금은 국비 학원을 3개월째 다니는 중이지만 처음 두 달은 강제로 줌으로 수업을 하였고, 현재는 자율제이지만 학생들이 비대면 강의에 익숙해져있고 집에서 수업을 들으면 식비와 교통비 등 지출하는 돈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와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비대면 수업을 하였을 때는 집중력이 흐틀어지기 때문에 딴 짓을 많이 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 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줌 활용의 재택근무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나온 것이 메타버스라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란 가상현실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직접 본인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을 하여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를 통하여 가상속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하고, 채팅 또는 마이크를 통하여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가상속의 현실을 뜻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근무했었던 내용은 가상현실세계를 뜻하는 VR 개발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견학을 못가는 학생들을 위하여 VR을 통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남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메타버스와 VR을 통하여 가보지 못했던 경주의 문화유산을 가상현실세계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서 수업을 듣지만 메타버스라는 아이템은 코로나를 극복하기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더욱 더 활성화가 되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더욱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메타버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게임은 VR chat이 있습니다.

VRchat이란 가상현실비디오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상현실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HMD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입체감있게 게임을 진행하고 서로의 캐릭터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준 mmo게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메타버스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직접 디자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캐릭터를 구매하여 본인의 캐릭터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직접 나가서 하는 방탈출은 시간은 짧은데 가격은 너무 비싸서 젊은 학생들이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스러움이 큽니다. VRchat을 통하여 싼 가격에 여러명의 친구들을 만들고 함께 할 수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하지만 HMD라는 장비가 없다면 사용을 할 수 없기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컴퓨터 사양이 받쳐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사람들간의 친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입사원이 입사를 한다고 하여도 대면으로 마주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어색한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근을 하여 회사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도 나누고, 가끔씩 회식을 가면서 서로간의 친밀도를 쌓은것이 인맥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회사 근처의 식당가들의 경제적 손해를 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같은 경우는 자체의 구내식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이 없이 점심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사먹을 것입니다. 식당가에서는 점심식사와 저녁에 회식을 바라보고 장사를 하겠지만 메타버스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식당가들의 식당들은 경제적 손해를 크게 보고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지역 상인들과 나라에서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해봤으므로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해본 사람으로써 저 또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인들을 보면 서울에서 편교로 출근하는 것만 봐도 기본 1~2시간 정도의 출근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출퇴근 시간으로 합쳐서 보게되면 2~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일명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을 안타도 되고,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거나, 개인 취미생활을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재택근무의 단점은 팀원들과의 소통과 상사와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채팅과 음성으로는 전달하는 것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대면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과 채팅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시에 대면으로 "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를 코드와 오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하는데 전달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택으로 했을 시에는 보안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업무 양을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직원이 집에서 놀았을지 업무를 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볼수록 장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국내에서만 생각해도 일자리는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같은 윗지방에 밀집해있고 아랫지방에는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지방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이나 경기도로 올라와야 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기숙사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4-5평 원룸만해도 월세가 60이상은 주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직종과 학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신입은 연봉 3000이상을 받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연봉 3000에 월세 60에 생활비까지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이런 금전적으로 끼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울에서의 인재들이 아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인재들을 영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있는 나라에서 메타버스를 통하여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인재들을 영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친누나 또한 독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있습니다. 현재는 한국 기업을 들어가고 싶어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한국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취업에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메타버스를 많이 도입을 하게 된다면 친누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의 단점은 있습니다. 기업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은 기업 등록되어있는 주소지로 통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사무실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사무실의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직원들의 전기세같은 지원금은 따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배로 날 수가 있습니다. 서류관리가 인사관리같은 관리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129명의 직원을 통한 조사 통계를 따르면 직원들은 메타버스를 통하여 근무를 하고싶어하는 사람이 65%로 절반 이상이 메타버스 출근을 원하고있습니다. 또한 연봉 인상보다 메타버스 출근을 희망하는 사람이 64%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통계처럼 돈보다는 워라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다고 알려져 모두가 가고싶어하는 구글보다 exp라는 회사가 구글을 뛰어넘고 복지가 좋은 회사에 뽑혔습니다. 지인들중에 NC나 넥슨, 크래프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래프톤에 다니고 있는 지인분에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출퇴근 택시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1년동안 택시비로 14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크래프톤같은 큰 기업들은 직원 수만해도 적게는 몇 천명, 많게는 몇 만명이 근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택시비를 저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하여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이러한 교통비 지원을 아낄 수 있으며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이용하게되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점인 국가와 국민들에게 시민의식을 심어주어 코로나 감염률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같은 경우 현재 지역 봉쇄령이 났습니다. 전염성이 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더 개개인 간의 조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통하여 사람들간의 접촉을 줄이고 전염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재택근무 도입으로 인하여 버스나 지하철같은 밀폐되고 접촉이 심한 곳을 피하는 것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메타버스의 단점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와 현재 시대에 맞게 적응을 잘 해가고 있지만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연령대를 같고 계신 분들은 it업계가 아니면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적응 될 때 까지의 장기간의 맨투맨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대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추가로 교육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각 기업의 메타버스를 봐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충분한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고 이것을 개발해가면서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성향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서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반대로 집에서 혼자 근무를 했을 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외로움을 많이 타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자율 선택제 출근을 도입하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은 출근을 하거나 최소 한달에 몇 번씩은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알고있는 회사일 것입니다. MS의 경우 전 세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5억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언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사람이 일본어를 잘하고 영어를 못하는 경우,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잘하고 일본어를 못하는경우, 일본사람이 영어를 잘 하고 한국어를 못 하는경우 등과 같이 서로의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메타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3.5억명의 직원들이 메타버스를 통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예시와 같이 말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MS같은 경우는 팀즈에 실시간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번역 기능을 통해서 전 세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로 출근을 할 수 있는 부서와 할 수 없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영업을 해야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현장 조사를 계속 해야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서별 차별 소리를 듣지 않게 이런 방면에서도 해결방안을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를 합친 단어로써 예를들어 회사에서 스키장이나 바다 리조트로 휴가를 보내주고 그쪽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케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별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기업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과 협력을 맺고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관광으로 인기가 없어진 지역의 숙박시설과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와 지역 인지도를 올리게되면 이것은 지역의 인지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도 올라가게되는 광고효과를 얻게됩니다. 전 직장에서 포항시와 협약을 맺고 VR관광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한창 인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VR을 통하여 포항시의 드라마 촬영장소 구경과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현재 토스는 경남 남해군과 협약을 맺고 숙박시설 및 관광상품 제작 판매를 진행중이고 야놀자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관광재단과 협약을 맺고 관광상품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협약을 맺는 경우는 서로 윈윈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진행중인 기업을 보게되면 리조트에서 근무시간에 업무를 진행하고 퇴근하고는 스키장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은 한 달동안 개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월차를 아끼고 아껴서 겨우 여행을 가곤 합니다. 회사에서 워케이션을 지원해주게 되면 월차를 아낄 필요가 없이 휴가를 즐기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성과 증가와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직장인들은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복지를 갖고있는 회사라고 생각을하여 지인들에게 회사 추천과 평생의 직장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할 때 연봉보기도 하지만 공무원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굵고 짧은 것 보다는 얇고 길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봉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입니다. 잡코리아같은 취업 사이트를 보면 회사 소개에 진행되고있는 복지를 써놓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소한 것들도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좋은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최고의 복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복지들이 쌓여서 좋은 기업들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복지로 인하여 직원들의 업무의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회사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며, 스트레스는 감소하게 됩니다. 월요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출근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합니다. 워케이션이나 메타버스를 통한 출근도 출근이지만 집이나 여행지같은 제 3의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출근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중을 못하고 딴 짓을 많이합니다. 요즘은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 전 지역에서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서 서로 공부하고 있는 자료 공유와 오늘 했던 공부 내용 설명을하고 서로 확인까지 해주는 정도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을 한 적이 있는데 음악적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영감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무실 책상에 계속 앉아서 머리를 싸맨다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곳을 방문을 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난관에 부딪혀봐야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생명같은 경우는 양양의 호텔과 협약을 맺고 직원들이 바다의 풍경을 보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는 개인적인 여가생활을 지원을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에어비엔비 통계를 따르면 일본에서 워케이션을 도입한 이후에 숙소 장기 예약이 일주일은 45%정도였고 한 달 이상의 장기 숙박 고객은 20%정도 였다고 합니다. 요 몇 년간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국내 회사가 워케이션 도입 후 숙박업소를 해외로 지원을 해준다면 해외여행과 근무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업무성 효율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런 지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회사에 애착을 갖고 정착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면 돈을 배로 벌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취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알아볼 때는 연봉과 복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복지보다는 연봉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연봉도 중요하지만 복지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워라벨이란 워킹 라이프 벨런스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MZ세대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한다는 관념이 박혀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줄 곳 퇴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찾아봐도 20대의 퇴사율이 가장 높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에서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기 위해 박사출신 연구원님이 학원으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의 눈을 보니 다크써클이 입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원생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저 기업은 워라벨중에 라이프는 없고 워킹만 있는 것 같다, 저 회사를 가면 우리의 라이프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개인적인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워라벨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연 근무제와 탄력 근무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시간 선택제 등과 같은 복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또한 회사에서 워라벨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주는 것이겠지만 메타버스와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회사에서는 정말 직원들을 위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인터넷과 정보사회 과제를 받고 논물을 읽어보고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학원 동기들한테 메타버스와 워케이션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다들 취업 준비생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 정말 좋은 복지이며, 동기들은 나중에 꼭 메타버스와 워케이션 도입되어있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회식을 참석해서 같이 즐기는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케이션은 정말로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휴가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워케이션이 도입되어있는 회사가 정말 최고의 복지를 갖고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꼭 워케이션이 도입되어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우선 대기업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나중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도 워케이션을 많이 시행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업들과 정부와 각 지역 지자체와의 의견 조율을 하면서 각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로의 광고효과를 얻으며 모든 기업들이 바로는 아니지만 찬찬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 기업과 지자체간의 서로 너무 깐깐하게 굴지말고 서로 어느정도 손해를 봐가면서 깔끔하게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